

게임빌

### 게임기획·사업·마케팅 '하계 인턴 공개 채용'

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게임빌은 '써머(SUMMER) 인턴십'을 통해 2018년 하계 인턴을 공개 채용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게임 기획 ▲게임 사업 ▲마케팅 부문으로, 5학기 이상 이수자 및 기졸업자가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접수 기간은 10일까지다. 서류 전형에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채용 홈페이지, 카카오톡 친구 찾기 '게임빌채용'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와의 소통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다.

이번 '써머 인턴십'을 통해 참여자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 산업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의미있는 기회를 얻고, 게임빌은 세계 무대에서 동반 성장할 차세대 인재들을 확보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이정용 새안 대표(가운데)와 강성태 글로벌코너스톤 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달 29일 말레이시아 자동차회사 '고오토'를 방문해 완 아흐마드 완 아말 고오토 총괄책임자(전무이사)에게 생산라인 구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새안

### 토종 전기자동차기업 새안 말레이시아 본격 진출

말레이 기업 고오토와 사업협약

국내 전기자동차기업 새안이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전기자동차 관련 최종합의를 마치고 말레이시아 기업 '고오토'(GO AUTO)와 함께 전기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정용 새안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 말레이시아 국제무역부 산하 자동차연구소(MAI)와 전기차 사업에 관한 협력방안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최종 합의를 했다.

이에 새안은 말레이시아 고오토와 함께 연구개발(R&D)을 통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새안의 1차 벤더사인 배터리 전문업체 2B4G도 지난달 29일 '고오토'와 사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정용 대표는 "향후 MAI 실사단의 방한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최종계약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안 측은 "한국 전기차 기술 이전에 힘을 쏟아온 말레이시아 현지 경제위원회(MPM)가 신임수상의 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어 전기차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안은 이달 중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미국 나스닥을 관장하는 전미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종목거래 시장 OTCBB 시장에 기술우회상장을 추진한다. 새안이 OTCBB로 등록되면 한국 내 새안은 미국의 한국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새안은 6월 중 일본에 '새안재팬'을 설립하고 일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964@

# 친환경·대북경협 '두토끼' 잡는다

## 시멘트업계

쌍용양회 폐열발전설비 도입  
제조원가 절감·온실가스 감축  
기대감 타고 상장사 주가 뿔뿔

시멘트업계가 '친환경'과 '대북경협'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시멘트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는 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숙제였다. 또 경제성 등 시멘트 제품 속성상 해외 수출이 쉽지 않아 시장이 제한적인 탓에 돌과구마련도 절실했다.

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친환경 노력과 더불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시멘트업계의 체증이 뺨 뚫리는 분위기다.

4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쌍용양회는 연간 전력비만 1000억원 가량이 드는 강원도 동해공장에 ESS(에너지 저장장치)와 폐열발전설비를 각각 구축했다.

ESS는 전력단가가 낮은 밤 시간대에 전기를 충전한 뒤 전력단가가 높은 시간대에 방전해 공장을 가동, 전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비로 꼽힌다. 시멘트는 생산설비의 핵



쌍용양회 동해공장에 들어선 폐열발전설비.

심인 킬른(Kiln·소성로)에서 클링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약 1450℃에 달하는 고온의 열을 사용한다. 폐열발전설비란 소성공정을 거친 후 평균 350℃까지 떨어진 열원 대부분을 대기에 배출하지 않고 이를 회수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장 가동을 위해 보다 저렴한 전기를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모아 전기를 생산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동해공장에 설치한 것이다.

쌍용양회 동해공장 추대영 공장장은 "폐열발전설비는 6월 현재 전체 공정률의 80%를 넘어섰고, 7월 중순 첫 시험가동에 이어 8월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면 ESS와 함께 공장에서 쓰는 전체 전력비의 30% 가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조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1조333억원 매출로 업계 2위인 쌍용양회는 43MWh(연간 2억 8100만kWh) 규모의 폐열발전설비를 위해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다. 22MWh 규모의 ESS설비는 국내에서 가장 크다.

쌍용양회 외에 성신양회(29.5MWh), 한일시멘트(25MWh), 삼표시멘트(19.7MWh) 등도 폐열발전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 2015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 관련 거래금액은 5월 말 현재 톤(t)당 2만6000원까지 육박하며 시멘트업계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시멘트 생산량 기준 1t당 1000원씩 부과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500억원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신설 관련 입법도 예고되는 등 원가절감을 통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남북 관계가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시멘트업계 내부에선 바라볼 곳이 '북한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다. 국내 건설시장의 경우 주택, SOC 등이 포화 상태라 먹거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시멘트회사들이 외국계나 사모펀드(PEF)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며 몇 년이 멀다하고 주인이 바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시멘트 상장사들 주가도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을 전후해 최근까지 급등했다.

4월 2일 대비 6월 1일 현재 주가는 현대시멘트가 1만4550원에서 7만6800원으로 5배 가량 급등한 가운데 성신양회(5490→1만5650원), 쌍용양회(2만3700→3만3000원), 삼표시멘트(3410→6560원) 등이 모두 가파르게 올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쌍용양회 동해공장 정경

## 네이처리퍼블릭, 중동 女心 유혹... 사우디 1호점 오픈

'K-뷰티 기획의 땅' 중동 본격 공략  
수도 리야드 중심 쇼핑몰에 입점  
'연내 5호점 입점 계약 확정'

네이처리퍼블릭이 중동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중심 번화가에 위치한 최대 규모 쇼핑몰에 1호점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8번째 진출국으로 'K-뷰티 기획의 땅'으로 떠오르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를 택했다. 중동은 화장품 시장 규모가 2020년 360억달러(약 42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최대 뷰티 시장으로 연평균 약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사우디아라비아

가 중동 국가 중 니잡(눈만 빼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률이 가장 높을 정도로 보수적인 만큼 2년여 간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쳤다. 시장조사는 물론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사우디식약청(SFDA)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분에 대한 유해성 등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수딩 앤 모이스처 알로에 베라 92% 수딩젤'과 '진생 로얄 실크 워터 크림'을 포함한 650여 품목에 대해 화장품 전자 통신 시스템인 eCosma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현지 최대 유통 그룹인 파와즈 알호카이르(Fawaz Alhokair)와 파트너사 계약을 체결하며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 그룹은 입점 브랜드의 선별이 까다롭기로 유명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의 확고한 자연주의 콘셉트와 뛰어난 제품력을 높이 평가해 라마단 기간임에도 1호점 오픈을 서둘렀다는 후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1호점은 알호카이르 그룹의 쇼핑센터 중 최대 규모로 현지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갖춘 알 나크힐몰에 입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뛰어난 제품력과 매장 인테리어 및 브랜드명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자연의 가치가 현지 고객들에게 큰 호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오픈 당일 파트너사와 5호점까지 입점 계약을 확정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올해 초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성공적인 안착을 시작으로 중동 시장까지 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1호점 오픈을 필두로 연내 대도시 중심의 대형 쇼핑몰에 5호점까지 선보일 예정이며 추후 소비 경쟁력이 있는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네이처리퍼블릭 사우디아라비아 1호점

/네이처리퍼블릭